

자궁내막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이재훈 교수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기술설명

본 발명은 여성 생식기 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변화를 유도하여 자궁내막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자궁내막증은 비교적 흔한 부인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춘 진단적 도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자궁내막증 진단의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은 복강경을 통해 복강 내의 병변을 육안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이나, 조기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발명자들은 여성 생식기에서의 세균 환경을 분석하여 자궁내막증과 관련성이 있는 복강 내 균주를 발굴하였으며, 상기 균주의 활성화와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자궁내막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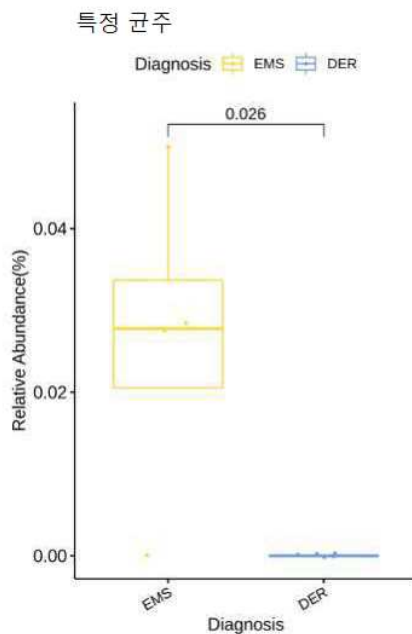


Fig) OTU 분석을 통하여 EMS 군과 DER 군의 여성 생식기 중 복강 내 특정 균주의 상대 존재비(relative abundance)를 비교 확인한 결과

여성 생식기 복강 내 특정 균주의 상대 존재비가 EMS군에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EMS군에서 자궁내막증이 발병하였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활용성

본 발명은 여성 생식기, 특히는 복강 내 특정 균주의 활성화 또는 증식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여성 생식기 복강 내 미생물 군집 조성을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궁내막증의 발병시기를 늦추거나 발병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발병 이후에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여성 생식기 내 존재하는 특정 균주의 메타게놈 분석에 의해 자궁내막증 발병의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자궁내막증 위험군을 조기에 진단 및 예측하여 적절한 관리를 통해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